

굿 거버넌스 전통 공여국 원조와 부패: 아프리카 43개국 분석연구

김다슬¹, 장혜영^{2*}

¹중앙대학교 정치국제학과 석사과정, ²중앙대학교 정치국제학과 조교수

Traditional Donors in Good Governance and Corruption: Analysis on 43 African Recipients

Da Sul Kim¹, Hyeyoung Chang^{2*}

¹Graduate Student, Department of Political Science and International Relations, Chung-Ang University

²Assistant Professor, Department of Political Science and International Relations, Chung-Ang University

요약 본 연구는 굿 거버넌스 논의에 기반한 원조의 영향에 대한 경험적 분석을 통해 전통공여국 OECD DAC 원조와 수원국 부패 간 관계를 분석한다. 이를 위하여 본 연구는 2000년부터 2014년까지 OECD DAC 원조 데이터, 부패인식 지수, 세계은행 데이터, 민주주의 지수를 중심으로 고정효과모형과 PCSE 모형을 사용하였다. 통계 분석을 시행한 결과 OECD DAC의 원조가 아프리카 수원국의 부패에 부정적 영향을 주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DAC의 원조는 아프리카 국가들의 부패 정도를 심화시키는 영향을 주며, 특히 민주주의가 발전한 국가에서 그 영향의 정도가 커짐을 확인할 수 있다. 이는 OECD DAC의 굿 거버넌스 중심의 원조와 수원국 부패 간 관계에 대해 보다 종합적인 후속 연구가 필요하다는 점과 함께, 지역적 특수성을 고려하였을 때에는 일반적으로 인식하고 있는 민주주의 제도 발전의 긍정적 효과가 오히려 역전되어 나타날 수 있다는 점을 제기한다.

주제어 : 전통공여국, 부패, 아프리카 수원국, 공적개발원조, 고정효과모형, PCSE 모형

Abstract This study analyzes the relationship between OECD DAC aid and recipients' corruption based on the good governance discussion. The study applies a fixed-effect model and PCSE model with a dataset of 43 African countries' corruption perception index, World Bank data, Polity IV, and OECD DAC aid statistics between 2000 and 2014. A statistical analysis confirmed that OECD DAC aid has a negative impact on corruption in African countries. DAC's aid affects negatively to corruption in African countries, especially in countries where democracy has matured. This research suggests that a more comprehensive follow-up study of the OECD DAC's good governance-oriented aid. Simultaneously, the general democratic effect on the recipients' institutions could not be applied in African countries, when considering regional peculiarities.

Key Words : Traditional Donors, Corruption, African Recipients, Official Development Assistance, Fixed-effect model, PCSE model

*This research was supported by the Chung-Ang University Graduate Research Scholarship in 2018.

*Corresponding Author : Hyeyoung Chang(changhy2010@gmail.com)

Received October 17, 2019

Revised November 25, 2019

Accepted December 20, 2019

Published December 28, 2019

1. 서론

국제개발협력은 전통 공여국의 원조를 통해 개발도상국의 빈곤을 퇴치하고 개도국의 경제 발전 및 국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이러한 전통 공여국들의 국제개발협력 공여 행위는 OECD DAC(Development Assistance Committee)의 원조 규범을 충실히 따르는 방식으로 진행되어 왔다. 그러나 중국 등 신흥 공여국들의 부상으로 인해 OECD DAC의 원조 규범에 대한 도전이 심화되었다. 신흥공여국 중 대표적인 공여국인 중국은 2000년부터 2014년까지 전 세계 약 122개국에 1,915억 달러를 지원함으로써 같은 기간 원조 공여 금액이 가장 큰 미국의 대외원조 지원 규모인 3,548억 달러의 절반 이상 수준의 원조를 제공하였으며[1], 전체 양자 원조에서 신흥공여국이 차지하는 비중이 2000년에는 약 5%였으나 2014년에는 약 20%에 이를 정도로 영향력이 커지게 되었다(Fig. 1참조)[1, 34].

급증하는 중국 원조액 및 편향적인 지역 선택의 행태와 더불어 신흥 공여국의 원조는 수원국의 경제적, 사회적 발전을 위한 원조가 아닌, 자원 이용이나 정치적 영향력을 확대하기 위한 것이며 공여국에서 서비스와 재화를 조달하도록 하는 구속성 원조가 나타나게 한다는 점에서 “전통 공여국”의 원조 규범과 충돌이 나타났으며, OECD DAC 회원국 및 NGO들을 중심으로 신흥 공여국의 원조 패턴에 대한 비판이 나타났다[2, 37].

전통 공여국인 DAC 회원국들은 비구속성 원조, 무상원조 중심의 원조 공여 규범을 확산하고 수원국의 주인의식을 고취하여 원조효과성을 높이는 방식으로 국제 원조 규범을 수립해왔다. 이 과정에서 DAC 회원국과 국제통화기금(International Monetary Fund, IMF), 세계은행(World Bank, WB) 등의 국제기구는 수원국의 민주주의 발전과 원조 투명성 제고를 담보할 수 있는 굿 거버넌스(Good Governance)를 촉진하는 원조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특히 DAC 회원국들은 원조효과성을 높이고 DAC의 원조 규범을 확산하기 위해 매년 각종 보고서 발간, 주기적인 동료평가(Peer Review) 등의 상호학습을 통해 전통공여국들의 원조 규범에 민감하게 반응하고, 이를 자국의 ODA(Official Development Assistance) 정책에 반영하려 노력한다. 이러한 회원국들의 노력은 국제개발협력의 원조규범을 제도화하고 이를 제공받는 수원국의 제도에도 영향을 미친다. 특히 민주주의 제도의 확산과 자유주의 경제질서를 동반한 굿 거버넌스는 전통 공여국의 원조 규범 속에 내재되어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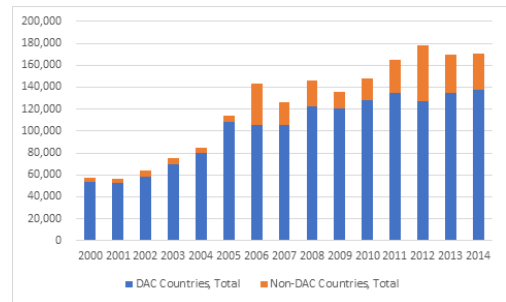


Fig. 1. Aid of OECD DAC and Non-DAC Countries (US million \$)

그러나 굿 거버넌스에 기반한 DAC 회원국들의 원조가 실질적으로 수원국에게 어떠한 영향을 주는지에 대한 실증적인 분석은 여전히 제한적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전통 공여국의 원조가 수원국 부패에 미치는 영향을 중심으로 “굿 거버넌스를 고려한 원조는 수원국의 부패를 완화에 도움이 된다”는 주장에 대한 실증 분석을 수행한다[3].

본 연구는 OECD DAC 회원국들의 원조와 수원국의 부패 간 관계를 이해하기 위해 우선 원조와 부패 간 관계와 DAC의 굿 거버넌스 논의에 대해 검토하고, DAC의 아프리카 국가에 대한 원조가 이들 국가의 부패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분석을 한다. 본 연구는 분석 대상을 아프리카 대륙의 국가로 한정하는데 그 이유는 대부분의 아프리카 국가들이 낮은 민주화 수준과 높은 원조 의존도를 보이기 때문에 굿 거버넌스 논의의 실효성을 점검하기에 적합하기 때문이다.

본 연구는 UN을 중심으로 2000년부터 2015년까지 새천년개발목표(Millennium Development Goals, MDGs)가 추진된 것과 데이터 이용가능성을 감안하여 2000년부터 2014년까지 OECD DAC 원조 데이터(OECD QWIDS)를 기반으로 OECD DAC의 원조가 대 아프리카 수원국의 부패에 대한 영향을 분석하였다. 이를 분석하기 위하여 본 연구는 부패인식지수(Corruption Perception Index), 세계은행 데이터(World Bank WDI), 민주주의 지수(Polity IV)를 중심으로 고정효과모형(Fixed-effect)과 PCSE(Panel-Corrected Standard Errors)모형을 분석방법으로 사용하였다.

본 연구는 OECD DAC 원조에 대한 기존 연구가 굿 거버넌스 논의에 따른 원조에 대한 다층적 분석을 결여한 채 새로운 원조 패러다임의 등장을 비판하고 있음을 지적하며 굿 거버넌스 논의에 기반한 원조의 영향에 대한 경험적 분석을 통해 전통공여국 원조와 수원국 부패

간 관계를 이해하는데 목표를 둔다. 또한 본 연구는 기존 연구와 달리 분석 대상을 OECD DAC로부터 원조를 받은 아프리카 국가들로 한정하여 분석하였다는 연구 의의가 있다.

2. 원조와 수원국 부패

부패는 국제투명성기구(Transparency International, TI)의 정의에 의하면 “사적인 이익을 얻기 위한 권력의 오남용”이다[33]. 특히 공적 자금이 특정집단의 사익을 추구하기 위해 본래의 목적에 부합되지 않게 사용되어 자원의 불균형적 배분이 나타나는 것을 부패라 한다. 수원국 정부의 오남용으로 인해 대외원조 자금이 부패의 자원이 된다는 비판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이를 규명하기 위한 연구가 지속적으로 진행되었다. 대외원조와 수원국의 부패 간 관계는 첫째, 부패가 원조효과성에 미치는 영향과 둘째, 원조가 부패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연구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첫째, 부패가 원조효과성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는 수원국 국내에서 원조 자금이 배분되는 과정에서 나타나는 수원국 정부의 역할을 강조하며, 부패로 인해 원조효과성이 낮아질 수 있음을 지적한다. 즉, 수원국 정부에 만연한 부패는 원조의 효과적 배분을 어렵게 하여 원조 목적을 달성하는데 방해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따라서 원조효과성을 높이기 위해 수원국의 부패를 낮추는 노력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즉, 부패지수가 높은 수원국에서 관료들은 사적 이익 추구를 위하여, 혹은 권력 유지를 위하여 원조를 이용하기 때문에 원조 자금이 원조의 목적에 맞게 쓰이지 않고, 원조는 관료들의 사적 자금으로 사용되어 원조의 효과가 낮아지게 된다[4-8].

둘째, 원조가 부패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는 부패 경감과 부패 심화라는 상반된 견해와 더불어 원조 무용론의 입장이 존재한다. 우선 원조가 부패를 경감할 수 있다는 연구는 수원국에 원조를 제공하는 과정에서 대외원조가 수원국 관료의 재정 관련 재량권을 제한하여 부패를 감소시킬 수 있다고 주장한다. 또한 원조가 공공 부문의 노동자들에게 필요한 임금을 제공함으로써 부패를 유발할 수 있는 상황을 제어할 수 있기 때문에 원조가 수원국 부패 경감에 도움이 된다고 본다[9]. 구체적으로는 양자 원조가 부패 완화에 끼치는 효과가 미비하지만 다자원조는 효과적이며, 수원국의 부패 수준이 낮을 경우 부패 완화에 원조가 끼치는 효과가 더 크다고 본다[10].

반면, 원조로 인해 민주적 정부에게 필요한 책무성이 약화되고, 원조 배분을 둘러싼 갈등이나 쿠데타 등을 야

기하여 오히려 수원국 정부의 부패를 촉진한다는 연구도 존재한다. 원조제공이 시민들의 민주주의에 대한 요구를 약화시키고, 권위주의 엘리트들이 권력 독점을 강화하는데 사용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해 줌으로써 원조가 궁핍한 시민들에게 수입으로 제공되어 체제순응적일 수 있는 경제적 조건이 갖춰지게 되고, 오히려 원조로 인해 정부가 납세자가 아닌 공여국에게 책임성을 지니게 되어 관료의 국민에 대한 책임성을 약화시킬 수 있기 때문이다 [5, 8, 12].

반면 원조가 수원국의 부패에 아무 영향을 끼치지 않는다는 연구도 존재한다. 덜 부패한 국가가 더 많은 원조를 받는 것이 아니라 더 부패한 정부가 더 많은 원조를 받고, 원조 자체의 부패 경감 효과를 확인할 수 없다는 것이다[11].

원조와 부패 간 관계에 대한 기존 연구들은 복합적인 연구결과를 제공한다. 그러나 원조와 부패 간 관계를 분석한 연구들은 전 세계 모든 수원국을 대상으로 하거나, 자료수집이 가능한 수원국 모두를 대상으로 연구를 수행하거나, 부패에 영향을 미치는 다른 변수들을 고려하지 않은 한계가 있다[12]. 이는 원조와 부패 간 관계의 국제적 추세를 확인하기 용이하지만, 지역적 특색을 반영한 분석을 하기에는 복합적인 분석대상을 구분하지 않은 한계가 있다. 특히 아프리카 국가들의 경우 대부분이 식민 지배를 거치고 제2차 세계대전 종전 후 신흥 독립국이 된 국가들로, 식민 잔재와 민족 분쟁 등으로 인해 정부의 역량이 취약한 경우가 많다. 따라서 원조와 부패 간 관계를 분석하기 위해 짧은 민주주의 역사를 가진 아프리카 국가들로 분석대상을 한정하여 원조와 부패의 관계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는 평균 부패수준이 높고, 민주화 수준 및 거버넌스의 질이 낮고, 원조 의존도가 높은 아프리카 지역을 선정하여 OECD DAC 회원국들의 원조가 아프리카 국가들의 부패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다.

3. 굿 거버넌스(Good Governance) 논의

대외원조에서 굿 거버넌스 담론이 확대된 것은 1970년대 이후 원조 피로(aid fatigue) 현상이 대두되면서 원조효과성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기 때문이다. 1950년대부터 본격화된 원조는 1960년대와 1970년대 각각 UN에서 지정한 ‘개발의 10년’, ‘제 2차 개발의 10년’을 거치며 자금이 확대되었다. 그러나 증가한 원조자금에 비해 국제 빈곤문제 해결이 미비하여 DAC 국가들을 중심으로

ODA 정책의 효과성 논의가 진행되었다. 원조효과성 논의는 수원국의 거버넌스 질과 경제발전의 관계에 대한 논의로 확대되었다. 특히 신자유주의적 담론인 워싱턴 컨센서스는 개발도상국이 발전하기 위해서는 안정적 거시경제정책, 자유무역, 민영화, 국가 소유 자산의 탈규제와 같은 '좋은 정책'과 민주주의, 소유권 보호, 독립된 중앙은행과 같은 '좋은 제도'를 강조하였다. 이에 전통 공여국은 ODA 수원의 '조건'으로서 굿 거버넌스 담론을 채택하게 되었고, 1980년대 초반부터 공공 은행, 민간 은행, 공여국의 지원 활동 뿐만 아니라 학계에서도 '거버넌스'와 '굿 거버넌스' 발전 담론의 중요성이 대두되었다[13].

굿 거버넌스에 대한 보편적 기준은 민주주의와 대표성, 인권, 법치주의, 효과적이고 효율적인 공공 경영, 투명성과 책임성, 시장 경제, 인권 규범 등이다[14-19]. 구체적으로 UNDP(1997)에서는 참여적이고, 투명하고, 책임성 있고, 효과적이고 공평하며, 법치주의를 촉진하고, 발전 자원의 분배에 취약층의 의견이 반영되며, 사회 합의에 기반하여 정치적, 사회적, 경제적 우선순위를 보장하는 것을 굿 거버넌스라 보았다[20]. IMF(2019)에서도 비슷하지만 '법치를 보장하고, 공공영역의 효율성을 향상시키고 부패를 다룰 수 있는' 것을 굿 거버넌스의 특징이라 하였다[3]. Hyden et al. (2004)에서는 6개 영역(시민 사회, 경제, 정부, 관료, 경제, 사법)에서 5개 차원(참여, 공정성, 적절성, 효율성, 책임성, 투명성)으로 측정되는 것을 굿 거버넌스라 보았다[21].

즉, 굿 거버넌스를 정의하는 영역의 범위는 안정적 거시경제정책, 빈곤 감소, 무역 개방성, 탈 분권화, 효율적인 세금 징수 및 의사결정에서의 시민 참여를 보장하는 민주적 제도 등을 모두 포괄하며 특정 정책만이 아니라 정책의 결과까지도 모두 아우른다고 할 수 있다[22].

특히 주목할 점은 가장 원조의 규모가 큰 미국의 원조 기관인 미국국제개발청(USAID)가 정의한 것으로서, '투명성, 다자주의, 의사결정에서의 시민 참여, 대표성, 책임성'의 "민주적" 거버넌스를 굿 거버넌스로 보고 있으며, 특히 집중해야 할 영역에 중점 입법부 강화, 분권화, 민주적 지방 거버넌스를 포함하고 있는 것이다[23].

그러나 초기 굿 거버넌스와 원조효과성 논의와는 다르게 경험적으로 굿 거버넌스에 기반한 원조, 특히 민주주의적 제도를 촉진하는 원조와 원조의 효과성 사이의 관계가 단선적이지 않다는 연구들이 존재한다[24-27]. 따라서 굿 거버넌스를 중심으로 한 원조가 수원국의 부패에 주는 영향에 대한 경험적 연구가 필요하다. 특히 DAC 국가들이 준수하는 굿 거버넌스에 기반한 원조가 수원국의 효율적

이고 투명한 공공행정을 촉진하기 위한 부패 완화에 어떠한 효과를 끼치는지에 대해 살펴볼 필요가 있다.

4. 연구 설계

본 연구의 목적은 2000년부터 2014년간 OECD DAC 회원국의 원조가 아프리카 수원국의 부패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는 것이다. 이를 위하여 본 연구는 대상 수원국을 아프리카 지역 국가들로 한정하고, 정부 지출액 및 민주주의 지수 자료를 구할 수 없는 코트디부아르(Côte d'Ivoire), 지부티(Djibouti), 에티오피아(Ethiopia), 리비아(Libya), 소말리아(Somalia), 남수단(South Sudan), 세이셸(Seychelles)을 제외한 아프리카 대륙의 43개국으로 대상을 특정하였다. OECD DAC의 원조가 아프리카 수원국의 부패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기 위하여 민주주의 정도, 경제발전 수준, 천연자원 의존도를 독립변수로 지정하였다. 또한 기존 연구를 통하여 부패에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수원국의 경제·사회적 변수들을 통제변수로 추가하였다.

연구 방법은 국가 내에 존재하는 상이성, 관찰할 수 없는 각 국가의 특징들을 통제할 수 있는 고정효과모형(Fixed-effect)과 패널 분석에서의 이분산성(heteroskedasticity)과 자기상관성(autocorrelation)이 존재하는 경우 사용하는 패널표준오차수정(Panel corrected standard error, PCSE)을 이용한다. 강건성 검증을 위해서는 이분산성과 자기상관성 문제의 개선을 위해 표준오차를 보정한 Driscoll & Kraay standard errors(DKSE)를 사용한 고정효과모형과 Pooled OLS 모형을 사용한다.

OECD DAC 회원국의 원조와 아프리카 수원국의 부패 간 관계를 살펴보기 위하여 다음의 가설을 설정하였다.

첫째, OECD DAC 회원국들의 원조가 수원국의 부패 완화에 긍정적 영향을 끼칠 수 있다. OECD DAC 국가들의 전통적 원조 공여 행위는 앞서 논의한 굿 거버넌스를 중시하는 원조로서 수원국의 거버넌스 역량을 향상시키는 원조를 제공하여 수원국의 부패 완화에 영향을 줄 수 있을 것이다.

가설 1: OECD DAC의 원조를 많이 받을수록 수원국의 부패의 정도가 완화될 것이다.

둘째, 민주주의 제도의 발전이 부패 완화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Treisman (2000)은 민주주의 제도가 정착되고 오랜 기간 시행한 국가의 경우 부패가 낮아진다고 보았고, Rock (2009)은 75-104개 국가에 대해 1996년부터 2003년간의 부패와 민주주의의 지속성 사이의 관계를 관찰한 결과 민주주의 제도 시행 초기에는 부패가 오히려 상승하고 4년에서 15년 정도의 정착기를 거친 후에 부패가 감소함을 확인했다[28-29]. 즉, 민주주의가 적절한 기능을 하는 경우에는 민주주의는 부패를 감소시키는 원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30].

이에 더해 추가적으로 살펴보아야 하는 것은, OECD DAC의 원조와 민주주의 사이의 관계이다. 국 거버넌스의 민주적 제도에 대한 강조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민주주의가 발전된 국가일수록 원조에 따른 부패 감소 효과가 커져야 한다. 이를 가설로 반영하면 다음과 같다.

가설 2: 아프리카 지역의 OECD DAC 원조 수원국은 민주주의가 더 발전할수록 수원국 부패의 정도가 완화될 것이다.

가설 2-1: 아프리카 지역의 OECD DAC 원조 수원국 중 민주주의가 더 발전할수록 OECD DAC의 원조의 수원국 부패 완화 효과가 커질 것이다.

셋째, 천연자원 보유가 많고 자원에 의존하는 국가의 경우 부패 정도가 심할 수 있다. 흔히 “자원의 저주”로 지칭되는 현상으로서, 자원을 풍부하게 지닌 국가가 경제적 성장이 더디고 비민주주의 국가가 되기 쉽다는 것이다. 풍부한 자원이 오히려 관료와 시민들의 지대 추구 행위를 야기하여 투자를 감소시키고, 정부의 비효율적인 행태를 지속시키고, 결국 부패를 촉진하게 될 수 있다[31]. 한 연구는 1980년에서 2004년까지의 124개국에 대해 분석하여 민주주의적 제도가 약한 국가인 경우 천연자원의 보유가 지대 추구를 증대시켜서 부패 정도를 심화시킴을 확인하였다[32]. 아프리카 지역의 국가들의 경우 대부분 민주주의 제도가 안착되지 않은 경우가 많음을 감안할 때 천연자원이 풍부한 국가의 경우 부패가 심해질 것이다.

가설 3: 아프리카 지역의 OECD DAC 원조 수원국은 천연자원에 대한 의존도가 높을수록 부패의 정도가 심해질 것이다.

본 연구의 분석 기간은 2000년에서 2014년을 대상으로 하며, 분석 대상은 아프리카 지역에서 OECD DAC의 원조를 받는 43개국이다. 분석 방법은 패널 회귀 분석 방

법으로 국가 간의 상이성을 고려한 고정효과모형과 국가 간의 차이를 고려하지 않은 PCSE 모형을 사용하였다.

Table 1. Source and definitions

Variable	Description	Source
CPI	Corruption Perception Index rescaled so that 0 represents highest corruption and 100 no corruption.	TI(Transparency International)
DAC Aid	Size of the OECD aid in percent of government expenditure (%)	OECD QWIDS, World Bank WDI
Democracy	ranges from -10 (strongly autocratic) to +10 (strongly democratic)	CSP(Center for Systemic Peace)
Resource	Size of natural resource In percent of GDP (%)	World Bank WDI
Population	(log) Population	World Bank WDI
Prosperity	GDP growth (%)	World Bank WDI
Expenditure	Government expenditure in percent of GDP (%)	World Bank WDI

Table 1은 본 연구모델에 사용한 변수들이다. 먼저 종속변수는 2000년부터 2014년까지 분석 대상 국가들의 부패인식지수(Corruption Perception Index, CPI)를 사용하였다. CPI는 국제투명성기구(Transparency International, TI)에서 기업, 정부 관계자 등이 인식하는 공공 영역에 대한 부패 인식을 측정하는 것으로 0부터 100까지로 표기하였고 0은 매우 부패, 100은 부패가 없음을 의미한다[33]. 독립변수로 전통 공여국의 원조의 영향을 파악하기 위해 OECD QWIDS에서 제공하는 자료와 World Bank WDI의 자료를 통해 정부 지출 중 원조가 차지하는 비중을 계산하여 독립변수로 설정하였다[34-35]. 민주주의 변수와 관련하여 CSP(Center for Systemic Peace)의 Polity IV 지수를 사용하였는데 이는 -10에서 10까지 21개 수치로 권위주의 국가와 민주주의 국가의 제도를 나타낸다[36]. 천연자원은 수원국의 GDP 중 천연자원이 차지하는 비중으로 설정하였다[35].

통제변수로는 기존 연구에서 부패의 원인으로 지목하였던 인구, GDP 성장률, GDP 중 정부 지출 비중을 추가하여 살펴보았다[35]. 변수 중 인구에 대해서는 자연 로그 값을 취하여 왜곡된 결과를 방지하고자 했다.

5. 실증분석과 논의

Table 2는 주요 변수들의 기술통계량이다. 종속변수

인 부패를 나타내는 변수는 CPI로, 최솟값은 10이고 최댓값은 65, 평균은 30.48이다. TI의 측정이 2000년부터 2010년까지는 0-10점이었다가, 2011년부터는 0-100점을 범위로 하고 있기에 2000년부터 2010년 값에는 10을 곱하여 조정하였다. 민주주의 지수의 경우 최솟값은 -7이고 평균은 약 2.08이고 최댓값은 10으로, 평균적으로는 권위주의 국가가 많지만 표준편차가 5.17임을 감안하면 민주주의 제도를 지닌 국가도 상당 수 존재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천연자원이 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평균 14.05%이고 최솟값과 최댓값의 차이가 매우 큼을 발견할 수 있다. 정부 지출은 GDP 대비 정부의 지출을 나타낸 것으로 평균은 약 14.73%이며 최소 약 0.95%를 지출하는 국가에서부터 최대 약 40.44%를 지출하는 국가까지 존재한다.

Table 2. Summary Statistics

Variable	Obs	Mean.	Std. Dev.	Min	Max
CPI	479	30.48	10.96	10	65
DAC Aid	479	0.57	0.87	-0.15	10.79
Democracy	479	2.48	5.17	-7	10
Resource	479	14.05	13.37	0	59.61
Population	479	16.28	1.34	13.09	18.98
GDP growth	479	4.98	4.08	-36.69	20.71
Expenditure	479	14.73	5.64	0.95	40.44

Table 3은 2000년부터 2014년까지 OECD DAC의 원조를 받는 아프리카 국가를 대상으로 국가 내 상이성을 고려한 고정효과모형으로 분석한 결과이다. Table 4는 국가 간 차이를 고려하지 않은 PCSE 모형으로 분석한 결과이다. 모든 가설을 포함한 모델을 (1)로, 각 가설에 따른 모델을 (2)부터 (4)로 설정하였다. 모델 (1)과 (2)에 따르면 OECD DAC의 원조는 아프리카 수원국의 부패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었다는 점이 고정효과모형과 PCSE 모형에서 확인되었다. 가설 1과는 다르게 OECD DAC의 원조가 수원국의 부패를 악화시키는 이유에 대해 추론해 보자면, OECD DAC의 원조가 공여국과 수원국의 정치적, 경제적 이해관계에 따라 배분되는 특성을 지니고 있다는 점을 들 수 있다.

이는 기존 연구와는 달리 아프리카 수원국에 대한 OECD 원조가 ‘굿 거버넌스 조건을 갖춘 수원국에 대한 선별적 원조를 제공하거나, 수원국의 ‘굿 거버넌스’ 신장이 OECD 원조의 조건이 되지 않음을 확인할 수 있다. 따라서 굿 거버넌스 규범에 따른 OECD 원조가 부패 감소에 미치는 영향이 미흡하다고 할 수 있다. 이는 OECD

DAC의 원조가 “민주적 거버넌스의 질을 향상시키고 수원국의 거버넌스 질 향상에 도움이 된다”는 기존의 주장에 대한 심도있는 후속연구의 필요성을 제기한다.

Table 3. Fixed-effect (within) Regression

DV:	(1)	(2)	(3)	(4)
corruption	All	DAC aid	Democracy	Resource
DAC aid	-0.729** (0.350)	-0.797** (0.352)		
Democracy	-0.318** (0.135)		-0.436*** (0.125)	
Resource	0.058 (0.043)			0.092** (0.042)
Population	16.398*** (2.225)	14.913*** (2.166)	16.112*** (2.097)	13.400*** (2.073)
Prosperity	0.087 (0.054)	0.101* (0.053)	0.058 (0.045)	0.024 (0.045)
Expenditure	0.165* (0.093)	0.197* (0.091)	0.225** (0.080)	0.269*** (0.081)
Observations	479	482	502	505
Groups	43	43	43	43
R-squared (within)	0.1682	0.1487	0.1463	0.1292

*** p < .01, ** p < .05, * p < .1.

Table 4. PCSE Regression

DV: corruption	(1)	(2)	(3)	(4)
	All	DAC aid	Democracy	Resource
DAC aid	-1.092*** (0.318)	-0.846** (0.303)		
Democracy	0.172* (0.085)		0.185* (0.096)	
Resource	-0.137*** (0.042)			-0.132** (0.042)
Population	-1.512** (0.380)	-1.595*** (0.456)	-1.311** (0.468)	-1.530*** (0.413)
Prosperity	0.087** (0.040)	0.072* (0.037)	0.050 (0.037)	0.060 (0.040)
Expenditure	0.381*** (0.074)	0.386*** (0.080)	0.403*** (0.071)	0.414*** (0.071)
Constant				
Observations	479	482	502	505
Groups	43	43	43	43
R-squared (within)	0.4713	0.4542	0.4572	0.4671

*** p < .01, ** p < .05, * p < .1.

가설 2의 민주주의에 대한 검증은 Table 3과 Table 4의 모델 (1), (3)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PCSE 모형에서는 민주주의가 부패의 수준을 완화시키는 것이 유의미함을 확인할 수 있지만 고정효과모형에서는 민주주의 지수가 높아질수록 부패가 음(-)의 방향, 즉 부패 수준이 심화된다는 것이 나타났다. 이는 민주적 정부가 될 부패할 것이라는 기존 연구와는 상반된 결과로서, 민주주의 제도의 심화가 부패 수준을 완화시킬 것이라는 기존 연구는

국가를 고려하지 않았을 경우에만 타당한 것으로 보인다. 아프리카 지역 국가들의 경우에는 형식적 민주주의 제도를 구비하고 있지만 민주주의 제도의 내재화가 미흡한 경우가 많기 때문에 개별 국가 내에서의 차이를 고려하면 오히려 민주주의 제도의 형식적 발전 수준이 부패 수준에 음(-)의 방향으로 영향을 주게 된다. 즉, 아프리카 국가들의 경우 민주주의 지수의 개선과 부패 완화 간 정(+)의 방향이 존재한다는 주장은 주요 사례연구를 통하여 재검토할 필요성이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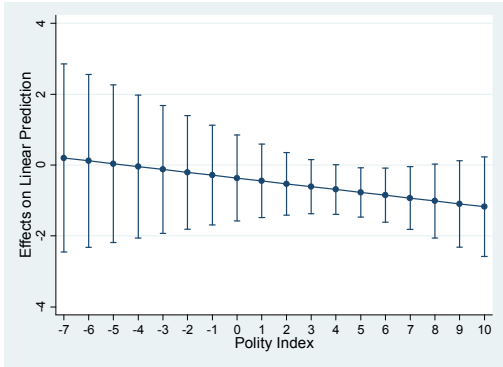


Fig. 2. Average Marginal Effects of OECD DAC Aid with 95% CIs (Fixed-effect)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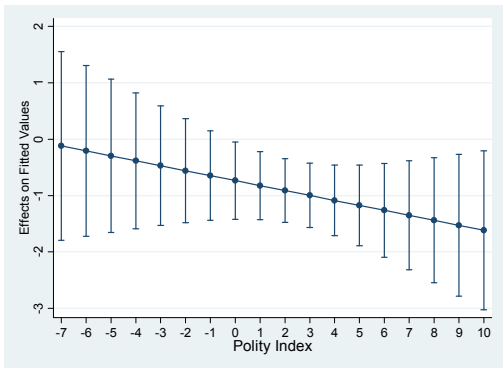


Fig. 3. Average Marginal Effects of OECD DAC Aid with 95% CIs (PCSE)

가설 2-1을 검증하기 위해 민주주의 지수에 따른 원조의 한계효과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Fig. 2는 고정효과 모형에 대한 한계효과(marginal effects)를 보여주는 그래프로, X 축은 민주주의 지수, Y 축은 한계 효과의 크기를 나타낸다. 표기된 점은 한계 효과를 나타내며, 세로 선

은 한계 효과의 신뢰도 95%의 신뢰 구간을 의미한다. 신뢰 구간이 음(-)과 양(+)의 방향에 걸쳐 있다면 한계효과가 0을 포함하기 때문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다고 할 수 있다. 분석 결과, 민주주의 지수가 5에서 7로 변할수록 OECD DAC의 원조가 부패 심화에 끼치는 영향의 정도가 음(-)의 방향으로 점점 커짐이 통계적으로 유의함을 알 수 있다. Fig. 3은 PCSE 모형에서 민주주의 지수에 따른 OECD DAC 원조가 부패에 미치는 한계효과를 보여주는 그래프로, 앞선 결과와 동일하지만 그 정도와 범위가 더욱 커졌음을 확인할 수 있다. Fig. 2와 Fig. 3은 가설과 다르게 민주주의 제도 발전이 원조의 부패 심화 효과를 확대하고 있음을 제시한다. 즉, 원조가 부패를 악화시키는 정도가 민주주의가 발전할수록 더욱 커지고 있다는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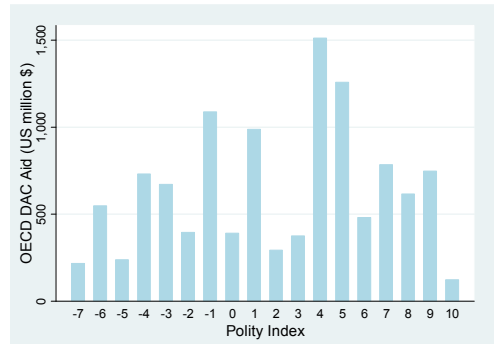


Fig. 4. OECD DAC Aid according to Polity Index

Fig. 4에서 민주주의 지수에 따른 OECD DAC의 원조 규모를 보면 일반적으로 민주주의 지수가 높은 국가에 원조가 집중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OECD DAC의 원조 정책의 효과성을 위해서는 집중되는 전통 공여국의 원조가 효과성을 거두기 위해 부패와의 관계 규명이 다각적으로 이루어져야 함을 제시한다.

가설 3에 대한 검증인 모형 (1)과 (4)에 따르면 국가 간 차이를 고려하지 않은 PCSE 모형에서는 가설 3과 같이 천연자원이 부패 수준에 음(-)의 방향으로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보여준다. 반면, 고정효과모형에서는 천연자원이 오히려 부패 완화의 방향으로 영향을 미친다. 이 같은 결과는 '자원의 저주'가 각 국가가 지니는 속성, 제도 등을 고려하였을 때 방지될 수 있음을 보여준다.

각 가설에 대한 결과의 요약은 Table 5에서 확인할 수 있다. 또한, 강건성 검증을 위해 이분산성과 자기상관성 문제 개선을 위해 표준오차를 보정한 Driscoll &

Table 5. Findings

Hypothesis	Fixed-effect	PCSE
Hypothesis 1 (DAC Aid →mitigation of corruption)	X (deepen)	X (deepen)
Hypothesis 2(Democracy →mitigation of corruption)	X (deepen)	O (mitigate)
Hypothesis 2-1(If democracy development, DAC Aid →mitigation of corruption)	X (deepen)	X (deepen)
Hypothesis 3(natural resource → deepening corruption)	X (mitigate)	O (deepen)

Kraay standard errors (DKSE)를 사용한 고정효과모형과 Pooled OLS 모형을 사용하여 검증한 결과는 Table 6와 같다. 강건성 검증의 결과 본 연구의 결과와 동일한 결과가 도출되었다.

본 연구는 OECD DAC의 원조와 아프리카 수원국 부패 간 관계를 고정효과모형과 PCSE 모형을 통해 검증함으로써 OECD DAC의 원조가 아프리카 수원국의 부패 정도를 완화시키기보다 오히려 악화시키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민주주의에 대한 가설 2도 반대의 결과가 도출되었으며, 특히 가설 2-1에 대한 검증을 통해 민주주의가 발전한 경우 원조가 부패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이 더욱 커짐을 확인하였다. 천연자원에 대한 가설 3의 경우는 PCSE 모형에서는 가설을 채택할 수 있지만 고정효과모형에서는 기존의 논의와는 달리 오히려 부패 완화에 유의미한 영향을 확인할 수 있다.

6. 결론

본 연구는 전통 공여국 OECD DAC의 대 아프리카 원조가 수원국 부패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분석하였다. 분석의 대상인 아프리카 지역은 부패 수준이 다른 지역들보다 악화되어 있고, 민주주의 발전 정도의 편차가 존재하며 원조 의존도가 높은 지역이므로 전통공여국이 내세운 굿 거버넌스 원조의 효과성을 확인하는 대상으로 적합하였다.

본 연구는 OECD DAC 원조가 수원국의 부패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기 위해 OECD DAC의 원조 비중, 민주주의, 천연자원 변수를 기반으로 통계 분석을 시행한 결과 OECD DAC의 원조가 아프리카 수원국의 부패에 부정적 영향을 주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구체적으로 OECD DAC의 원조를 많이 받을수록 수원국의 부패의 정도가 완화될 것이라는 가설 1은 OECD DAC의 원조가 수원국의 정부 지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커질수록 부패 수준이 악화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OECD DAC의 원조가 실제적으로 수원국의 거버넌스 역량과 상관없이 제공되는 경우가 많고, 중국 등 신흥 원조국들에 비해 원조 금액이나 프로젝트의 수가 더 많기 때문에 나타나는 결과임을 가정해볼 수 있다.

민주주의 발전 단계가 높은 국가일수록 부패 정도가 완화될 것이라고 본 가설 2의 경우에도 가설과 반대의 결과가 도출되었다. 개별 국가 내에서 나타나는 민주주의

Table 6. Regression with Driscoll-Kraay standard errors

DV:corruption	Fixed-effect Model				Pooled OLS			
	(1)	(2)	(3)	(4)	(1)	(2)	(3)	(4)
	All	DAC aid	Democracy	Resource	All	DAC aid	Democracy	Resource
DAC aid	-0.729*** (0.245)	-0.798*** (0.265)			-2.450*** (0.476)	-2.225*** (0.478)		
Democracy	-0.318*** (0.093)		-0.436*** (0.084)		0.376*** (0.028)		0.572*** (0.033)	
Resource	0.058 (0.039)			0.092** (0.0413)	-0.248*** (0.027)			-0.294*** (0.027)
Population	16.400*** (3.236)	14.910*** (3.121)	16.110*** (3.581)	13.400*** (3.386)	-1.562*** (0.298)	-1.913*** (0.324)	-1.174*** (0.263)	-1.631*** (0.337)
Prosperity	0.087** (0.040)	0.101*** (0.0259)	0.058** (0.027)	0.0245 (0.026)	0.062 (0.042)	-0.022 (0.067)	-0.048 (0.036)	0.134** (0.050)
Expenditure	0.166** (0.071)	0.197*** (0.0572)	0.225** (0.096)	0.270*** (0.080)	0.517*** (0.072)	0.666*** (0.064)	0.683*** (0.080)	0.627*** (0.063)
Constant	-239.1*** (52.150)	-215.6*** (50.200)	-234.6*** (57.150)	-193.5*** (54.840)	51.96*** (5.087)	53.14*** (5.747)	38.34*** (4.034)	51.15*** (5.482)
Observations	479	482	502	505	479	482	502	505
R-squared					0.409	0.263	0.298	0.355
Groups	43	43	43	43	43	43	43	43

*** p < .01, ** p < .05, * p < .1.

의 제도적 발전이 부패를 심화시키는 방향으로 영향을 준다는 결과는 아프리카 지역의 경우 형식적 민주주의 제도를 보유하는 국가가 다수라는 부분을 후속 연구들에서 고려해야함을 제시한다.

마지막으로 천연자원 관련 가설에서도 고정효과모형 분석 결과 천연자원이 부패 수준에 정(+)의 방향, 즉 부패 완화에 영향을 끼친다는 것이 통계적으로 유의미함을 보여준다. 이는 PCSE 모형에서 나타나는 '자원의 저주'가 각 국가가 지니는 속성, 제도 등을 고려하였을 때에는 조건에 따라 '자원의 저주'가 방지될 수 있음을 보여준다. 특히 자원과 관련한 연구 결과는 원조가 수원국 내의 거버넌스 질에 따라 천연자원과 관련한 부패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제기한다. 즉, 원조가 천연자원 보유국의 부패에 직접 영향을 미친다기 보다 매개 혹은 중재 변수로 작용할 수 있는 가능성을 보여주는 것으로 향후 원조, 천연자원, 그리고 부패 간 중층적 관계에 대한 후속 연구가 필요한 부분이다.

본 연구는 연구 기간을 2000-2014년으로 한정하였다는 것과 OECD DAC의 원조만을 대상으로 하여 신흥 공여국의 원조 혹은 다자원조를 대상으로 하지 않았다는 한계가 존재한다. 그럼에도 OECD DAC의 원조와 아프리카 수원국의 부패 간 관계에 대한 기존 연구와 달리 OECD DAC 원조가 수원국 부패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특히 민주주의와 원조가 연계된 부패 경감의 효과가 미비하다는 것을 확인하다는 의의가 존재한다. 이는 OECD DAC의 굿 거버넌스 중심의 원조와 수원국 부패 간 관계에 대해 보다 종합적인 후속 연구가 필요하다는 점과 함께, 지역적 특수성을 고려하였을 때에는 일반적으로 인식하고 있는 민주주의 제도 발전의 긍정적 효과가 오히려 역전되어 나타날 수 있다는 점을 제기한다.

REFERENCES

- [1] R. Bluhm, A. Dreher, A. Fuchs, P. Bradley, A. Strange & M. Tierney. (2018). Connective Financing: Chinese Infrastructure Projects and the Diffusion of Economic Activity in Developing Countries. *AidData Working Paper*, 64, 1-67.
DOI : 10.2139/ssrn.3262101
- [2] N. Woods. (2008). Whose aid? Whose influence? China, emerging donors and the silent revolution in development assistance. *International Affairs*, 84(6), 1205-1221.
DOI : 10.1111/j.1468-2346.2008.00765.x
- [3] International Monetary Fund. (2019). *IMF and Good Governance*. International Monetary Fund.
<https://www.imf.org/en/About/Factsheets/The-IMF-and-Good-Governance>
- [4] A. Alesina & D. Dollar. (2000). Who gives foreign aid to whom and why?. *Journal of Economic Growth*, 5(1), 33-63.
DOI : 10.3386/w6612
- [5] G. Economides, S. C. Kalyvitis & A. Philippopoulos. (2004). Do foreign aid transfers distort incentives and hurt growth? Theory and evidence from 75 aid-recipient countries. *CESifo Working Paper*, 1156, 1-25.
DOI : 10.1007/s11127-007-9239-9
- [6] D. Kaufmann. (1999). Anticorruption strategies: Starting afresh? Unconventional lessons from comparative analysis. *Curbing Corruption: Toward a Model for Building National Integrity*, 35-50.
- [7] H. J. Kim. (2013). An Empirical Analysis of Impact of Official Development Assistance(ODA), Corruption and Interaction effect on Global Poverty: A Case of ODA Recipient Countries. *Korean Corruption Studies Review*, 18(3), 1-28.
- [8] K. M. Morrison. (2009). Oil, nontax revenue, and the redistributive foundations of regime stability. *International Organization*, 63(1), 107-138.
DOI : doi:10.1017/s0020818309090043
- [9] J. Tavares. (2003). Does foreign aid corrupt?. *Economics Letters*, 79(1), 99-106.
DOI : 10.1016/s0165-1765(02)00293-8
- [10] K. Okada & S. Sovannroeun. (2012). The effect of foreign aid on corruption: A quantile regression approach. *Economics Letters*, 115(2), 240-243.
DOI : 10.1016/j.econlet.2011.12.051
- [11] D. Brautigam. (2008). *China's African aid: Transatlantic challenges*. Washington, DC: German Marshall Fund of the United States.
- [12] S. Asongu. (2012). On the effect of foreign aid on corruption. *Economics Bulletin*, 32(3), 2174-2180.
DOI : 10.2139/ssrn.2493289
- [13] T. G. Weiss. (2000). Governance, good governance and global governance: conceptual and actual challenges. *Third world quarterly*, 21(5), 795-814.
DOI : 10.1080/713701075
- [14] J. Donnelly. (1998). Human rights: a new standard of civilization?. *International Affairs*, 74(1), 1-23.
DOI : 10.1111/1468-2346.00001
- [15] M. S. Grindle. (2004). Good enough governance: poverty reduction and reform in developing countries. *Governance*, 17(4), 525-548.
DOI : 10.1111/j.0952-1895.2004.00256.x
- [16] Y. A. Stivachtis. (2006). Democracy, the Highest Stage of 'Civilised' Statehood. *Global Dialogue*, 8(3/4), 101-112.
- [17] A. B. Güven. (2018). Whither the post-Washington

- Consensus? International financial institutions and development policy before and after the crisis. *Review of International Political Economy*, 25(3), 1-26.
DOI : 10.1080/09692290.2018.1459781
- [18] R. Gisselquist. (2012). *Good governance as a concept, and why this matters for development policy*. Helsinki: UNU-WIDER.
- [19] C. Hobson. (2008). Democracy as civilisation. *Global Society*, 22(1), 75-95.
DOI : 10.1080/13600820701740746
- [20] UNDP(United Nations Development Programme). (1997). *Governance for Sustainable Human Development*. New York: UNDP.
- [21] G. Hyden, G. Hydén, K. Mease & K. Mease. (2004). *Making Sense of Governance: Empirical Evidence from Sixteen Developing Countries*. Boulder. Colorado: Lynne Rienner.
DOI : 10.5860/choice.42-4873
- [22] M. S. Grindle. (2007). Good enough governance revisited. *Development policy review*, 25(5), 533-574.
DOI : 10.1111/j.1467-7679.2007.00385.x
- [23] U. S. Agency for International Development. (2013). *USAID Strategy on Democracy, Human Rights and Governance*. Washington, DC: USAID.
- [24] G. R. Montinola & R. W. Jackman. (2002). Sources of Corruption: A Cross-country Study. *British Journal of Political Science*, 32(1), 147-170.
DOI : 10.1017/s0007123402000066
- [25] A. Alberto & B. Weder. (2002). Do corrupt governments receive less foreign aid?. *American Economic Review*, 92(4), 1126-1137.
DOI : 10.1257/00028280260344669
- [26] S. Knack. (2004). Does foreign aid promote democracy?. *International Studies Quarterly*, 48(1), 251-266.
DOI : 10.1111/j.0020-8833.2004.00299.x
- [27] D. Sebastian. (2010). Good governance, institutions and economic development: Beyond the conventional wisdom. *British Journal of Political Science*, 40(1), 195-224.
DOI : 10.1017/s0007123409990287
- [28] D. Treisman. (2000). The causes of corruption: a cross-national study. *Journal of Public Economics*, 76(3), 399-457.
DOI : 10.1016/s0047-2727(99)00092-4
- [29] M. T. Rock. (2009). Corruption and democracy. *The Journal of Development Studies*, 45(1), 55-75.
DOI : 10.1080/00220380802468579
- [30] D. Enste & C. Heldman. (2017). *Causes and consequences of corruption: An overview of empirical results*. Köln: Institut der deutschen
DOI : 10.4337/9781786434753.00011
- [31] A. Ades & R. Di Tella. (1999). Rents, competition, and corruption. *American Economic Review*, 89(4), 982-993.
DOI : 10.1257/aer.89.4.982
- [32] S. Bhattacharyya & R. Hodler. (2010). Natural resources, democracy and corruption. *European Economic Review*, 54(4), 608-621.
DOI : 10.2202/1935-1682.1890
- [33] *Transparency International*.
<https://www.transparency.org/what-is-corruption>
- [34] OECD QWIDS(Query Wizard for International Development Statistics),
<https://stats.oecd.org/qwids>
- [35] *World Bank WDI(World Development Indicators)*.
<https://databank.worldbank.org/source/world-development-indicators>
- [36] *Center for Systemic Peace*.
<https://www.systemicpeace.org>
- [37] P. Kragelund. (2008). The return of non-DAC donors to Africa: new prospects for African development?. *Development policy review*, 26(5), 555-584.
DOI : 10.1111/j.1467-7679.2008.00423.x

김 다 슬(Da Sul Kim)

[학생회원]



- 2018년 2월 : 중앙대학교 정치국제학과(B.A)
- 2018년 2월 ~ 현재 : 중앙대학교 정치국제학과 석사과정
- 관심분야 : 국제개발협력, 권위주의
- E-Mail : camddadda@naver.com

장 혜 영(Hyeyoung Chang)

[정회원]



- 1995년 2월 : 중앙대학교 정치외교학과(B.A)
- 1999년 8월 : 중앙대학교 정치외교학과(M.A)
- 2005년 8월 : University of Southern California, M.A. in Political Science
- 2010년 12월 : University of Southern California, Ph. D in Political Science
- 2015년 2월 ~ 현재 : 중앙대학교 정치국제학과 조교수
- 관심분야 : 비교정치, 도시정치, 국제개발협력 등
- E-Mail : changhy2010@gmail.com